

KMI 국제물류위클리

2016년 8월 24일 · 제371호
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
총괄 이성우 실장, 감수 김범중 연구위원

Contents

| 물류정책 · 사업동향 |

1. DP월드, 공세적인 투자전략으로 고속 성장세 지속
2. 파나마 운하 확장개통에 따른 美 동안 항만의 단기적 편익은 미미
3. 중국 시안~폴란드 바르샤바 Block Train 개통
4. 머스크서플라이서비스, 해상직 인력 400명 감축

| 물류시장동향 |

1. 인도네시아 탄중 프리옥,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 개장
2. 캘리포니아 대형산불, 미국 남서부 복합운송에도 영향





물류정책 · 사업동향

DP월드, 공세적인 투자전략으로 고속 성장세 지속

- 두바이의 항만터미널 운영사 DP 월드가 높은 매출액 신장과 수익 증가로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
 - World Maritime News의 보도에 따르면, DP월드의 2016년 상반기 6개월간 매출액(revenue)은 지난해 상반기 6개월간의 19억 달러에 비해 10.2%가 증가한 20억 달러를 기록했음
 - DP월드의 수익(earnings)은 2015년 상반기 6개월간 총 4억5백만 달러 규모에서 2016년 상반기 6개월간 이보다 2억3백만 달러(한화 약 2천800억 원 상당)가 증가한 6억8백만 달러를 기록해 작년 동기(6개월) 대비 50.2%가 증가함
 - 이와 같은 매출액 증가는 제벨 알리 자유무역지역 및 캐나다 프린스 루퍼트 항의 인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
- 매출액 증가와 달리 DP월드의 2016년 상반기 총 화물 처리량은 작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에 그쳤음
 - DP월드측은 그룹 산하 모든 터미널 처리량을 합산한 총 화물 처리량(Consolidated throughput)은 2015년 상반기 1천438만 TEU 수준에서 2016년 상반기 1천460만 TEU로 1.6%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밝힘
 - 이처럼 화물 처리량의 증가세가 더딘 것은 최근 수년간 세계 무역 여건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DP월드측의 분석임
 - 실제로 세계무역기구(WTO) 등이 2016년 상반기 중 내놓은 보고서는 2016년 세계 무역 증가율이 2015년과 동일한 수준인 2.8%에 그칠 것이며, 이와 같이 세계 무역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개발도상국의 상품수입 수요가 증가하는 대신, 선진국의 수입이 여전히 둔화되고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에 따른 것임¹⁾
- 세계 무역의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DP월드가 선전한 데 대해 DP월드 측은 유망 시장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 포트폴리오를 효과적으로 구사한 결과라고 자평하고 있음
 - DP월드 그룹 회장 겸 CEO인 술탄 아흐메디 빈 술레이엠은 World Maritime News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DP월드가 유망 시장에 5억8,600만 달러의 자본을 투자했다고 밝힘
 - 덧붙여 술레이엠 회장은 세계 무역의 성장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자사의 포트폴리오가 매우 잘 짜여 있어 2016년 하반기 시장에서도 좋은 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
- DP월드측은 향후에도 강력한 금융 투자 등 공세적인 투자전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힘

1) WTO, "Trade Growth to remain subdued in 2016 as uncertainties weigh on global demand," WTP Press Release, 2016.4.7., https://www.wto.org/english/news_e/pres16_e/pr768_e.htm 참조



- DP월드는 2016년 4월 현재 세계 40개 국가에 77개소에 이르는 해상 또는 내륙 터미널을 운영 중이며, 컨테이너 화물 처리를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음
- DP월드는 중동이라는 좁은 무대를 떠나 인도의 코친, 첸나이, 태국의 램차방, 홍콩, 중국 등지에 이미 터미널을 운영 중이며, 현재에도 세계 곳곳에 많은 터미널을 개발하고 있음
 - * DP월드의 근거지인 제벨 알리는 DP월드의 공격적인 투자에 힘입어 세계적인 항만으로 올라서고 있으며, 2018년까지 연간 2천210만 TEU의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갖는 세계적 규모의 항만으로 확장될 예정임
 - * DP월드측은 2016년 중 제벨 알리 자유무역 지역을 포함해 영국의 런던게이트웨이, 캐나다의 프린스 루퍼트, 인디아의 자와할랄네루항(JNP), 터키의 야림카 등에 총 12억~14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임

자료 : www.worldmaritimenews.com August 18, 2016.

박성준 전문연구원
051-797-4774, sjpark@kmi.re.kr



파나마 운하 확장개통에 따른 美 동안 항만의 단기적 편익은 미미

- 미국 뉴욕-뉴저지 항만은 파나마 운하 확장개통에 따른 물동량 증가 편익을 얻기 위해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음
 - 파나마 운하 확장개통에 따라, 미국 동안의 주요 항만들은 아시아-미주 구간의 물동량 증가로 인한 다양한 기회와 편익을 취할 수 있는 상황에 놓임
 - 하지만 미 동안의 주요 항만 중 뉴욕-뉴저지 항만의 경우, 관련 인프라 시설 확충, 항운노조 문제, 육상부문 교통혼잡 가중현상 등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음



베이온 브릿지 전경

자료 : www.container-news.com

- 뉴욕-뉴저지 항만의 경우, 베이온 브릿지 상향 공사가 진행 중으로 대형 선박의 진출입이 어려운 상황임
 - 뉴욕-뉴저지 항만 지역에 위치한 베이온 브릿지(Bayonne Bridge) 상향공사가 파나마 운하 확장개통 시기에 맞춰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, 2017년 말로 완공 시점이 늦어짐
 - 베이온 브릿지 상향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, 뉴욕-뉴저지 항만으로 포스트 파나마급 선박들이 입항하지 못하는 실정임
 - 이로 인해 Maersk나 Hapag Lloyd 등의 주요 선사들은 뉴욕-뉴저지 항만의 기항을 고려하지 않고, 기존의 항로로 계속 운항할 계획에 있음
- 뉴욕-뉴저지 항만은 노조파업 문제와 교통혼잡 악화현상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
 - 미국 서부항만의 항운노조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파업가능성은 낮으나, 파업 등 항운노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임
 - 금년 1월에 발생한 파업으로 항만 터미널 기능이 일부가 마비되었으며, 수출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 바 있음
 - 뉴욕-뉴저지 지역의 교통혼잡 문제 또한 효율적인 화물운송을 위해 풀어야 할 문제 중 하나임
 - 뉴욕의 경우 미국 내에서 가장 교통혼잡이 심한 도시 중 하나로, 파나마 운하 확장개통으로 대형선박들이 뉴욕-뉴저지 항만에 기항할 경우, 늘어나는 물동량으로 인해 교통혼잡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

자료 : www.bmiresearch.com 2016.8.2. / www.container-news.com 2016.6.28.

이건우 전문연구원
051-797-4784, gunwoo@kmi.re.kr



중국 시안~폴란드 바르샤바 Block Train 개통

- 지난 8월 18일, 중국 시안에서 폴란드 바르샤바행 Block Train이 첫 운행을 시작함
 - 시안에서는 출발하는 Block Train은 2013년 중앙아시아행 Block Train 운행이 시작된데 이어, 금번에 처음으로 유럽행 노선 운영을 시작함
 - 동 Block Train은 시안을 출발하여 중국 알라산커우 국경을 거쳐 카자흐스탄, 러시아, 벨라루스를 경유하여 폴란드 바르샤바까지 운행되며 총 길이는 9,048km임
 - 바르샤바는 폴란드의 수도이자 유럽 도로·철도교통망의 중요 허브로서, 바르샤바에 도착한 화물 중 일부는 독일 함부르크 및 뒤스부르크, 폴란드 루지(Lodz) 등으로 연계 운송됨
 - 금번 운행에는 41개의 컨테이너를 적재하였으며, 주요 화물은 기계설비 및 부품, 가구, 정수기, 제빙기, 알루미늄 제품, 의류, 전자기기 등이며, 화물의 80%가 장강삼각주, 주강삼각주, 텐진, 산둥성 등 외지에서 온
- 시안은 금번 바르샤바행 Block Train 개통을 통해 대 유럽 간 물류 효율을 제고시킬 방침
 - 동 Block Train의 운송시간은 12일로 해상운송 대비 약 30일, 도로운송 대비 약 8~10일 단축되며, 운송비는 항공운송의 1/5 수준임
 - 또한 2008년 설립 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안국제항무구(Xi'an International Trade&Logistics Park)는 운송, 물류, 무역 및 IT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, 중국 '일대일로' 전략의 중요한 국제 환적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망
 - 시안국제항무구는 시안 철도국, 중국철도컨테이너운수(CRCT) 등과 협력하여 수출 주 1회, 수입 월 1회의 정기 Block Train을 운영할 계획이며, 세관 기능 및 하역 서비스를 개선하여 중국과 유럽 간 안전하고 고효율의 수출입 물류루트를 구축한다는 방침임

시안~바르샤바 Block Train 발차 모습



자료 : www.info.chineseshipping.com.cn

시안국제항무구 전경



자료 : www.itl.gov.cn

자료 : www.info.chineseshipping.com.cn, 2016.8.18.

김세원 연구원
051-797-4775, ksw@kmi.re.kr



머스크서플라이서비스, 해상직 인력 400명 감축

- 덴마크에 위치한 머스크서플라이서비스(Maersk Supply Service) 본사는 해상직 인력 1,450명 가운데 400명을 9월 말까지 정리해고하기로 함
 - 머스크서플라이서비스는 석유가스산업 분야에서 초심해에 시추설비 정박, 무어링(mooring) 설치, 해저 유전의 굴착장치인 리그(rig) 운반, 생산 장비와 시추장비 수송 등의 해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임
 - 현재 머스크서플라이서비스는 약 1,450명의 해상직과 260명의 육상직 인력을 고용하고 있음
- 머스크서플라이서비스 Jorn Madsen 회장은 이번 인력감축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전례 없는 시장 환경에 직면한 상황에서 회사의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단계라고 밝힘
- 그는 이번 결정이 영업 기회의 한계와 해양지원선(Offshore supply vessels)의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한 선박 축소에 따른 것이라고 말함
 - 머스크서플라이서비스는 18개월 안에 선박 20척을 감축시킬 계획임. 이에 따라 올해 안에 10척의 선박이 폐선 되거나 개조용으로 매각될 것으로 예상됨
 - 지난 6월에는 선박 Finder가 매각되기도 함
 - 한편, 선박리뉴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머스크서플라이서비스는 10척의 신조를 주문한 상태임. 이 중 6척은 해양예인특수선(Anchor Handling Tug Supply vessels, AHTS)이며 4척은 해저작업지원선(Subsea Support Vessels, SSV)임
- 2015년 머스크서플라이서비스는 1억4,700만 달러의 순영업이익을 달성하였으나 2016년 2분기에는 1억 600만 달러의 순손실이 발생함
 - 머스크서플라이서비스는 2016년 2분기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해양지원선(Offshore supply vessels)의 공급이 과잉 되고 가까운 미래에 수익 마진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함
 - 머스크서플라이서비스는 새로운 매출원을 찾는 중이라고 함

자료 : www.seatrade-maritime.com, 2016.8.18.

전우현 연구원
051-797-4615, jwh0321@kmi.re.kr



물류시장동향

인도네시아 탄중 프리옥,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 개장

- 인도네시아 제1항만으로 수도 자카르타에 위치한 탄중 프리옥의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인 NPCT1(New Priok Container Terminal One)이 지난 주에 개장하였음
 - NPCT1은 인도네시아의 항만공사 중 하나인 Pelindo II, 일본의 NYK Line, 미쓰이 및 싱가포르의 PSA International이 합작하여 건설한 터미널로, 안벽길이 850m, 수심 16m로 연간처리능력은 150만 TEU임
 - 지금까지 탄중 프리옥항은 수심 제한으로 대형선박의 접안이 어려웠으나, NPCT1 개발로 인해 1만 5,000TEU 급의 컨테이너 선박유치가 가능해졌음

자료 : NYK Line 보도자료, 2016.8.19.

송주미 전문연구원
051-797-4773, jmsong@kmi.re.kr

캘리포니아 대형산불, 미국 남서부 복합운송에도 영향

- 미국 서해안 로스앤젤레스 북동부 지역에 발생한 산불의 영향으로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가스를 연결하는 주요 고속도로가 폐쇄된 데 이어 해당지역의 철도 교통마저 마비될 위기에 처함
 - 이로 인해 태평양 횡단 컨테이너 화물의 주요한 환적지점인 해당 지역을 관통하는 화물 운송은 지연, 우회 등의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
- 철도노선의 폐쇄로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을 오가는 복합운송 관련 시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
 - 해당 노선을 따라 운송되는 화물은 36~48 시간의 지체가 예상되며 철도가 언제 재개통 될지도 불분명함
 -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산불이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지난 8월 16일, 샌버나디노(San Bernardino) 카운티 지역을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이 일대를 연결하는 주간도로(Interstate highway)인 I-15의 해당 구간을 폐쇄함

자료 : www.joc.com, 2016.8.17

박창근 전문연구원
051-797-4781, beinji2@kmi.re.kr